해남서 '대학 태권왕' 가린다

22~29일까지 우슬체육관
전국서 2천여명 참가 열전

'제 32회 한국대학태권도연합 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가 오는 22일부터 8일간 해남군 우슬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각 대학 선수단 2천여명이 참가해 열전을 벌인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태권도 대회는 처음 유치한 종목으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경제에 10억원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에서는 '춘계 한국 중등 축구대회'와 '제27회 회장기 레슬링대회', '전국대학배구대회', '중·고펜싱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열린 데 이어 다음 달 25일부터 사흘간 '제21회 전남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된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8일 '2009 한국지방자치 만족대상' 스포츠 마케팅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국가대표' 스키점프단 날개 달았다

최용직 선수, 강칠구·김흥수 코치 하이원 입단

"집이 하나 생겨 정말 한 식구가 된 느낌입니다"

스키점프 국가대표 최용직(27)과 강칠구(25), 김흥수(29) 코치가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입단식을 가지고 하이원 스키점프팀에 정식으로 입단했다.

지난해 먼저 하이원에 입단한 최흥철(28)과 김현기(26)에 이어 남은 두 선수와 코치까지 입단하면서 스키점프 국가대표팀 모두가 한 팀에서 안정적으로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입단식에 참석한 하이원 리조트의 최영 대표이사는 "입단 결정에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며 "이제 하이원 스키점프팀이 선수 4명과 코치 1명으로 정상적인 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걱정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 온 선수들에 격려를 보낸다. 이제 안정적 여건이 마련됐으니 운동에 집중해 기량을 향상시킬 계기가 될 것 같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는 축전을 보내왔다.

최용직과 강칠구는 "입단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 열심히 운동에만 전념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먼저 하이원에서 뛰고 있던 동료 최흥철과 김현기도 이날 자리에 참석해 정말 한팀이 된 동료에 축하를 보냈다.

최흥철은 "그동안 다른 선수들은 소속팀이 없어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이제야 웃는 게 정말 웃는 것 같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김현기 역시 "이제 정말 한팀이 된 것 같다. 집이 하나 생겨 식구가 된 느낌"이라며 동료 선수들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하이원 소속으로 5명이 본격적으로 함께 움직이게 된 스키점프팀은 앞으로 알펜시아 스키점프장에서 국내 훈련을 하고 해외 전지훈련도 나가는 등 기량을 키워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리버풀의 스티븐 제라드(오른쪽)가 17일(한국시간) 열린 챔피언스리그 데브레체니와의 홈경기에서 마르셀 포도르와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헛심 공방'

유럽 챔스리그 최대 '빅 매치'
바르샤-인터밀란 0-0 무승부

2009-201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조별리그 최대 빅매치로 꼽혔던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인테르밀란(이탈리아) 간 맞대결은 헛심 공방으로 막을 내렸다.

바르셀로나와 인테르 밀란은 1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주세페 메아차 스타디움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전.후반 90분 동안 접전을 펼쳤지만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지난해 스페인 프로축구 사상 첫 '트레블'(프리메라리가·국왕컵·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 3관왕) 위업을 이뤘던 바르셀로나는 대회 2연패를 향한 첫 관문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다.

반면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 인테르 밀란은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홈 경기 무승부에 만족했다.

바르셀로나는 최전방에 티에리 앙리를 포진시키고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와 리오넬 메시를 좌우 양 날개로 내보냈다.

호화 공격진을 내세워 전체 슈팅 수에서 15-9로 앞서고도 골을 넣지 못한 바르셀로나는 후반 32분 앙리를 빼고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를 투입했지만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인테르 밀란도 사뮈엘 에토오와 알베르토 밀리토를 투톱으로 내세워 간간이 역습을 노렸지만 오프사이드 트랩에 자주 걸리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유니폼을 바꿔 입은 스타 공격수 이브라히모비치와 에토오 역시 친정 팀을 상대로 첫 맞대결을 벌이고도 둘 다 득점포를 가동하진 못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빅4' 아스널과 리버풀은 나란히 승전보를 전했다.

아스널은 H조 조별리그 1차전 원정경기에서 전반 초반에 두 골을 먼저 내준 뒤 세 골을 터뜨려 스탕다르(벨기에)에 3-2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전반 2분과 5분 스탕다르에 내리 두 골을 허용한 아스널은 조직력을 재정비해 전반 45분 니클라 벤트너의 첫 골을 시작으로 후반 33분 토마스 베르마엘렌, 후반 36분 에두아르두가 연속 골을 뽑아 전세를 극적으로 뒤집었다. 리버풀도 E조 1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45분에 터진 디르크 카윗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 데브레체니(헝가리)를 1-0으로 물리치고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연합뉴스

"짐볼·티볼·핸들러… 들어 보셨나요"

광주생체協, 내달 29일까지 '뉴스포츠 강습회'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가 '2009 뉴스포츠 종목 보급 강습회'를 내달 2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강습회는 어린이들의 체육활동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실시한다.

광주교육대부설초 등 6개교에서 열리는 이번 강습회는 7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매일 3회씩 실시된다.

특히 짐볼·티볼·핸들러 등 아직 접해보지 못한 뉴스포츠에 대한 이론 강습과 실기를 통해 학교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시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이미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어린이체능교실·청소년체련교실 등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광주지역 내 24개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고 있다.

김창준 회장은 "이번 강습회가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뉴스포츠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 학교생활체육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

전남도청 김용률 코치 펜싱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펜싱협회가 2009 세계펜싱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김용률(46·사진) 펜싱 국가대표 사령탑을 선임하는 등 코칭스태프를 대폭 물갈이했다.

펜싱협회는 17일 펜싱 국가대표 경쟁력 강화와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강화위원회를 거쳐 코칭스태프 6명 가운데 3명을 새로 선임하거나 보직 변경했다고 밝혔다.

펜싱협회는 우선 김용률 전남도청 코치를 펜싱 국가대표 신임 감독 겸 여자 사브르 코치로 임명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김용률 감독은 1991년부터 6년간 남자 사브르 코치를 맡았으며 2003년과 2007년 청소년 대표팀을 이끈 경력이 있다. /연합뉴스

전통무용 경연대회

20일 광산 과기원 대강당

제5회 광주시연합회장배 전통무용경연대회가 오는 20일 광산구 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국민생활체육 광주시전통무용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동호인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전통무용(민속·고전·발레·현대창작 등), 외국전통무용(밸리댄스·재즈·살사·탭댄스), 생활창작무용(비보이·힙합·챠밍), 살사댄스 단체전 등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또한 종목별로 유치·초등·중등·고등·대학·일반·장년·프로부로 나눠 개인과 단체전으로 기량을 겨루게 된다. 문의 (062) 971-5877.

/서승원기자 sws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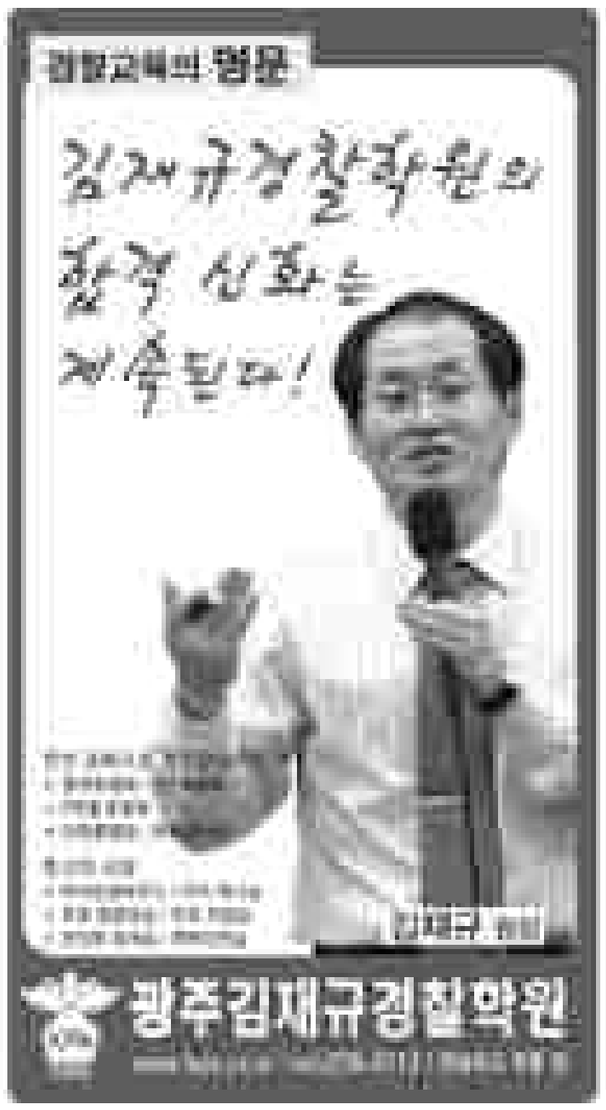
스포츠카메

18일(금)

▲LPGA 삼성 월드 챔피언십 1R (09 : 30·SBS골프)

▲SBS코리안투어 메리츠 솔모로 오픈 2R (13 : 00·SBS골프)

▲신세계 KLPGA 선수권대회 최종라운드 (13 : 00·MBCESPN)

▲프로야구 〈KIA : LG〉(18 : 20·SBS스포츠), 〈한화 : 두산〉(18 : 20·KBSN SPORTS·MBCESPN), 〈히어로즈 : 롯데〉(18 : 15·Xports)

▲아시아 여자농구선수권 〈대한민국 : 태국〉(22 : 20·SBS스포츠)